

광주 면세점 유치하려면 '규제 가시' 뽐아야

전년도 외국인 입국자 30만 명 증가한 시에만 신규 특허 광주 지난해 6만명 입국...관광후 쇼핑위해 서울·부산행 광주신세계, 호텔 건립해 유치 추진...요건 완화 한목소리

'쇼핑 큰 손' 중국의 유커를 잡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면세점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광주는 관련 규제 탓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턱없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적용하다 보니, 광주지역의 면세점 유치는 규정상으론 힘든 실정이다. 이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는 지난 2013년 1월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산업 규제 강화 차원으로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시에만 신규특허를 부여한다. 특히기

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신규특허를 따기도 힘들지만 5년에 한 번씩 재도전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광주·전남 등 관광산업이 다소 취약한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수에 묶여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기가 더욱 힘든 상태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는 6만여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라도 광주의 경우 과도한 관광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 면세점이 들어 온 것은 1967년

이다. 김포공항 내 우리나라 최초로 면세점이 오픈됐다. 면세점 사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불었던 해외여행 붐으로 인해 급성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국 면세점 외국인 매출 5조8000억원은 총 관광수입인 19조원의 약 30%를 차지했다. 10억당 고용 유발은 13명으로 단위매출당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면세점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효자 산업이 되고 있다. 면세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산업이지만 광주·전남지역은 과도한 규제 탓에 '면세점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광주·전남을 방문한 뒤 쇼핑을 하기 위해 서울을 찾아가고 있다. 또 바다와 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제주와 전남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한 뒤 면세점을 찾아 부산 등지로 넘어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현재 광주신세계(대표 이사 유신열)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에 특급호텔을 건립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위커펀, 롯데면세점의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이다. SK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고, 여기에 신세계와 두산이 뛰어들었다. SK네트웍스는 기존점 외에 동대문에 추가로 면세점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7.27 (+0.68)
-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2)
- ▲ 코스닥 667.21 (+10.51)
- ▼ 환율 (USD) 1154.90원 (-2.00)

보해양조 창업주 손녀 임지선 부사장 취임

3세 경영 본격화

보해양조(주)는 창업주의 손녀인 임지선(30·사진) 전무 겸 대표이사를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임원인사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

보해양조(주)는 11일, 임지선 전무 겸 대표이사를 부사장으로 정민호 사회공헌팀 전무이사를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해양조(주)의 경영 총괄은 임지선 부사장이, 전무 겸 영업총괄은 정민호 영업총괄본부장이 담당하게 됐다.

임지선 부사장은 작고한 창업주 임광행 회장의 차남인 임성우(췌장암)를 회장의 장녀로 미국 미시간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나소닉 인사팀장과 창해에탄을 상무 등을 거치는 등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업계에선 보해양조가 임지선 부사장과 전문경영인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성우 회장이 차후 장



녀에게 보해양조의 경영권을 물려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지선 부사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면 남성이 주요 고역인 국내 주류업계에 첫 여성 단독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하게 된다.

임지선 부사장은 영업총괄본부장으로서 업계의 흐름을 읽는 분석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임새주부라더', '부라더#소다', '복받은부라더' 등 부라더 시리즈를 선보여 주류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임지선 부사장은 기발한 의미를 담은 제품 네이밍 등 이색적인 홍보와 프로모션·소비자 밀착 경영 등 젊은 마케팅 감각과 글로벌 경영 방식을 현장에 적용해 변화를 주도해 사내외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기아차, 러시아 질주

시장 점유율 20% 돌파

현대기아차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하며 시장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렸다.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의 5대 중 1대는 현대기아차라는 의미다.

11일 유럽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아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1만4422대를 팔아 현지 업체인 라다에 이어 2위, 현대차는 1만4145대를 판매해 3위를 기록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지난 10월 판매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와 8% 줄었으나 러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이 38.5%나 급감하면서 오히려 현대기아차의 시장 지위는 더욱 확고해 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기아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1.1%, 현대차는 10.9%를 기록해 양사를 합쳐 22.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점유율 22.1%를 기록하며 러시아 시장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0.1% 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러시아 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시장점유율은 현대기아차 합쳐 20.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20% 대를 넘어서게 됐다.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판매를 이끄는 것은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쉐라리스(국내명 : 엑센트)와 리오(국내명 : 프라이드)다. 현대차 쉐라리스는 10월 9507대를 판매해 러시아 시장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연협뉴스



노란우산공제 4조 돌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0만, 부금 4조 돌파 행사'에서 건배제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10월 실업률 광주 상승·전남 하락

전국 전달보다 35만명 늘어... 고용지표 개선

전남지역 실업률은 2%로 전년 동월 대비 0.2%하락했고, 광주지역 실업률은 2.8%로 전년 동월대비 0.5%소폭 상승했다. 또 전국 청년층 실업률은 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 관련 지표가 대체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10월 취업자 수는 262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37만9000명 늘었던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25만6000명)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가 9월(34만7000명)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기보다 50만4000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60.9%로 같았

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전체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내렸다. 이는 2013년 11월(3.1%)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광주시의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고, 전남도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비맥주, 광주에 인재육성 장학금

광주시에 1500만원 기탁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11일 '카스'와 '프리미어 OB'의 생산 공장이 있는 광주시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를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는 재단법인 '빛고를 장학재단'을 통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장학금은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오비맥주 제품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인재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대표 향도 기업인 오비맥주는 광주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더욱 큰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오비맥주에 대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남도의 읍자적 강진에서 옹기배는 정윤석씨(정명리(4)) 부자

A 2알 40kg 40L, B 1알 20kg 20L, C 1.5알 15kg 15L, D 3알 60kg 60L, E 2알 40kg 40L, F 1알 20kg 20L, G 0.5알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리1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진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립,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6~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무출신 여성' 희망 33~67세</p> <p>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3) 275-7766